

# 살 빼려다 마약 중독?...마약 성분 다이어트약 무분별 처방

### 중복·장기 처방 성행...필로폰과 유사, 불면증·환각 등 부작용 중고거래 가능해 청소년 위험 노출도...성분 등 설명 의무화

광주지역 일부 병원이 일명 '다이어트의 성지'로 불리며 마약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지에서도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이 중고로 유통돼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의 중독과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최근 찾은 광주시 서구의 한 내과에는 다이어트약을 처방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진료를 받으려면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지만, 약을 처방받는다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정부가 인바디 검사 등을 통해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하고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었다.

A씨(32)는 "2년 전부터 결혼을 앞두고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을 처방받았다"면서 "약간 과체중 수준이었는데 한달치 약을 먹고 10kg 감량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약을 끊으니 15kg이 다시 찌는 '요요현상'이 나타났다"면서 "2년여간 약을 먹고 살을 빼고 약을 끊으면 다시 찌고를 반복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또다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 2~3개월 분을 한꺼번에 처방받았다.

펜터민은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 배고픔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 효과는

크지만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용하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고, 우울증과 불면증, 환청·환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펜타메트라진, 마진돌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만 17세 이상, 체질량지수(BMI) 30kg/m<sup>2</sup> 이상인 사람 등에게 4주 이내에, 최대 3개월 동안만 단기처방·투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일부 병원은 무분별하게 마약류 다이어트 약을 처방해 주고 있다.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만난 안모씨(여·27)씨는 "다이어트 약에 마약 성분이 있는줄 몰랐다. 의사가 부작용을 언급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씨는 "이전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처방만 받았다"고 했다.

허술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3개월 이상 장기처방 받거나 병원을 옮겨다니며 많은 약을 처방받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약류가 포함된 다이어트 약들이 온라인을 통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처방받은 약을 되팔고 있는 것이다.

실제 광주지역 커뮤니티에 "디에타민에 내성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푸린정(펜타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 받았다"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댓글에는 "구매를 원한다"는 글이 달리기도 했다.

마약류 성분이 든 약물은 중독과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5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마약사범은 2021년 95건, 2022년 106건, 2023년 50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마약사범 총

740명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이 508명으로 68%를 차지했다.

문제는 정부의 안전기준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마약류가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과다처방해도 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의료행위를 벗어난 사실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와 같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경우는 적발이 매우 어렵다"면서 "식약처에서 요청이 오면 수사 협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받아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에게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물도 '의사가 처방했으니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인식을 갖게할 수 있다"며 "의사의 처방자율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처방시 성분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동신고총동창회(회장 조영중)가 지난 24일 광주시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동문 27명의 활약상을 담은 '동신인의 민주화운동 출판기념회와 북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조선대 법인, 광주시 추천이사 받는다

### '공익형 이사제' 이례적 도입... 개방성·투명성 제고

조선대 법인 이사회(이사장 김이수)가 '공익형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익형 이사제는 외부 추천인사를 이사회 멤버로 받아들이는 제도로, 학교법인에서 도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조선대 법인은 "최근 조선대학교 본관 법인의실에서 제7차 이사회를 열고 '공익형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사 후보자 추천은 광주시장에게 의뢰하기로 했다.

조선대는 1988년 학내 민주화 과정을 거쳐 박철용 전 총장 일가 등이 물러난 후 임시 이사회를 거쳐 2020년부터 정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익형 이사제'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로 선임해 학교법인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법인은 그동안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촉구해온

교수평의회, 총동창회 등의 뜻을 존중해 이같이 의결했다.

법인은 '공익형 이사제'를 도입을 계기로 민립대학의 위치를 살리고 지자체와 사립대학이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조선대 교수평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가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법인과의 학내 갈등이 마무리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법인 관계자는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익형 이사제'를 이사회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한 만큼 학내 갈등이 마무리되고 구성원들의 저력을 총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학 구성원이 글로벌대학30 선정이라는 공통목표를 향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민주주의 위해 목숨 바친 동신인에게 바칩니다

### 고 정선엽 병장 등 27명 활약상 담은 책 나와...10월 기념비 제막식도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끈 광주 동신고 동문들의 활약상이 담긴 책이 출간됐다.

광주 동신고 총동창회는 지난 24일 5·18기념 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동신인의 민주화 운동 출판기념회와 북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동신고 총 동창회가 모금을 통해 펴낸 '동신인의 민주화운동'(동신의 12·12와 5·18)에는 영화 '서울의 봄'으로 재조명된 고(故) 정선엽(7회 졸업)

병장의 이야기를 비롯해 1980년 5월 20일 공수부대에 의해 희생된 고 박기현(12회), 전남도청에서 시민군의 밥을 지었던 김경임(동신여고 10회) 등 졸업생들의 5·18 당시 활약상과 5·18 이후 민주화와 노동 운동에 참여했던 27명의 사연과 이야기가 담겼다. 책에는 1980년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5·18 민주화운동 일지와 학교별 5·18 관련자(사망, 부상, 구속)도 정리돼 있다.

총동문회는 책 판매대금으로 책에 실린 27명의

졸업생을 기리는 기념비를 제작해 교정에 세울 예정이다. 기념비에는 모금에 참여한 600여명의 동문들의 이름도 새겨진다. 기념비 제막식은 오는 10월 20일 열린다.

경향수 동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은 "동신인은 한국사회 여러 분야에서 업적을 남기고 있다"며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까지 우리나라 민주화 중심에는 동신인이 있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치고 고난을 견뎌 온 동신인에게 책을 바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7년간 장애인 염전 노동·임금 착취 업자 가족 실형

부당하게 장애인들에게 염전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업자 가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경)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과 10년 동안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리면서 A씨의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합계 기소된 A씨의 가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4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여간

작업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거나, 이들 명의로 대출 받는 수법으로 3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선고를 앞두고 징역 4년 6월을 구형받았으나 가족 등 4명이 추가 기소돼 그동안 재판 받았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반복해서 지적장애인들을 부당노동시키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정도, 건강 상태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40724-중-173103호

**<광고>**

# 상무지구 BYC사거리 진료문의 | 062-381-3900

## 이제 광주스마일안과의원에서 시력을 개선하세요!

-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 풍부한 임상경험의 조용윤원장
-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과

**광주 스마일 안과**  
Smile Eye Clinic

스마일수술/라식/라섹  
드림렌즈 / 노안라식  
www.smile-eye.co.kr